

랑 콧사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1달 동안 파리본사에 교육을 받으러 갔었다. 항상 주위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를 궁금해 한다. 그래서 랑콤지 기회를 계기로 독자 여러분께 특별히 이야기 하고 싶어졌다.

현재 파리의 가장 큰 백화점인 Le printemps(르 프랑땅)에서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약중인 Josy는 수백명의 상담을 해주었으며 특히 사업가, 정치가, 텔런트, 영화배우 등과의 상담을 통해 파리는 물론 이제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그녀를 일부러 찾아 상담을 하러

오는 고객들도 무척 많다.

그녀를 프랑스에서 흔히 "Morpho psychologist" 라고도 지칭한다. "모르포 프시코로지"란 바로 내적 외적의 조화 즉, 개인의 장점과 단점을 빠른 시간내에 파악하는 기술을 그녀는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고 한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듯이 각자의 개성과 성격이 바로 다시 얼굴에 표현된다는 점이다. 특히 "모르포 프시코로지"란 심리학과 연결이 되는 학문으로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았다.

랑콤은 그녀의 재능을 통해 모든 여성에



파리에서 만난 이미지 변신의 마술사, **Josy Mermet** (조지메르메)

김은수 / PBI 교육담당자

게 어울리는 스타일, 메이크업 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녀와 독자적인 계약을 이루었다.

벌써 Josy Mermet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서 성공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그녀의 손을 거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한다. 그녀는 15세부터 자신의 스타일을 찾았고 타인에 대한 관찰력을 키워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하기를 자신의 스타일을 잘 알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만사에 적극적인 동시에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룩(look)이라는 것은 색상에 대한 문제보다도 내심과 외심의 조화이며 특히 외모는 바로 자기 개성의 표출이라는 것이다.